

생각의 기술
논술의 기술 ①

| 율킨이 박진환 |

서울대학교에서 윤리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경상대 사범대학에서 2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몽클레어 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매튜 립맨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그 후 2년간 도덕적 판단교육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한국 철학교육 아카데미’의 총무를 맡아 고차적 사고력 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를 10년간 해왔으며, 현재 한국윤리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사고력 관련 저서로는 ‘열려라 생각 주머니 4~6학년 교재 및 지도서’(양산 교육청 및 경남 교육청)를 감수했고, 초·중등 도덕 교과서를 집필했다. 또한 미국 몽클레어 대학의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가 출판한 ‘사고력 교육 시리즈’(철학교육 아카데미 출판부) 번역에 참여하고 립맨 교수의 사고력 교육 이론서인 ‘고차적 사고력 교육’(인간사랑)을 번역 출간했으며 ‘생각 없는 일기, 백날 써봐야 소용없다’라는 책을 집필하는 등 고차적 사고력 교육의 확산에 애쓰고 있다.

| 율킨이 김혜숙 |

서울교대를 나와 초등학교에서 2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왔으며 어린이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에 고차적 사고력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 10여 년간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립맨 교수의 사고력 교육 이론서인 ‘고차적 사고력 교육’(인간사랑)을 번역 출간했으며 현재 경상대에서 윤리교육 박사과정을 이수중이다

The Thinker's Guides series
by Richard Paul and Linda Elder

©2006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The copyright for any and all editions of the Thinker's Guides in the Thinker's Guides series is held exclusively by the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Korean language edition published by HOTECH(Higher-Order Thinking Education Center).

Permission to reprint any and all pages in this document is allowed only through authorization by the authors, Richard Paul or Linda Elder,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과의 독점 계약으로 HOTECH(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이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생각속의 기술 논술의 기술 ①

어떻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는가
| Analytic Thinking |

| 역자 서문 |

현재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흘러넘치고 다양한 가치가 뒤섞여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아는 능력’, ‘합당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그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고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생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의 강조, 학교에서의 사고력 교육 강조, 대학입시에서의 논술 강조는 모두 이러한 해법을 향한 노력이다.

세계 학계에서도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바탕이 되는 주된 이론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는데 두 접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에니스(Robert Ennis), 립맨(Mattew Lipman)과 같은 철학자는 주로 논리학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반면 퍼킨스(D. N. Perkins), 스텐버그(Robert J. Sternberg)와 같은 심리학자는 인지심리학의 지능개념에 바탕을 두고 접근한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두 가지 접근을 두루 연구하여 두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 조화시키는 데 주력한 학자이면서 교육 실천가다. 특히 생각이나 학습에 기초가 되는 읽기와 쓰기에 독자적인 방법론을 구축하고 있다.

리처드 폴 박사가 주축이 되어 30여 년간 이끌어온 ‘비판적 사고 재단(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은 미국 공인 우수 연구소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전 세계 비판적 사고력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 시리즈는 비판적 사고 재단의 ‘The Thinker’s Guide Series’를 번역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와 같은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시리즈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독자에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첫째,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적절히 판단함으로써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 해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생각의 기본 구조와 학습의 근본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공부를 잘 하고 싶은 학생과 학생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교사에게도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다.

셋째, 생각, 학습, 읽기, 쓰기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줌으로써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논술에 대해 그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국내 논술 관련 책자들을 보면, 지나치게 어려워 학생과 교사들이 흥미를 잃게 하거나 지나치게 쉽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논술과 학습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를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며, 국내에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1편인 **‘어떻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는가’**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생각의 구성요소와 그것들에 적용되어야 하는 표준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이 국내 많은 학생, 교사 그리고 일반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6년 3월 역자

| 어떻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는가 |

◎ 왜 분석적 사고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가

분석과 평가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적인 기술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잘 하거나 학습내용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과 평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는 시나 수학공식, 교재의 개념들, 에세이, 소설, 기사 등을 분석하라는 과제가 자주 주어진다. 하지만 분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학생이 있을까? 분석을 할 때 어떤 모형을 사용하면 되는지 아는 학생이 있을까?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 대부분이 분석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분석할 때 어떤 모형을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른다. 그저 아주 모호한 감각만을 가지고 분석할 뿐이다. 또 학생들은 분석을 잘 하는 것이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 물론 학생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어른들도 생각 속에서 분석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모른다.

“나는 차를 고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엔진 부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카센터 직원은 없다. “미안하지만 나는 각 문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문법학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필요한 기초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필요한 기초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분석을 하라고 하거나 평가를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선 학생들은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모형을 알고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만약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형이 내면화된다면, 학생들은 '생각의 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도구' 라는 아주 강력한 지적인 도구를 갖게 되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과 평가라는 이 지적인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삶의 모든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생각의 기술 논술의 기술'**이라는 시리즈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왜 생각을 명료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역사서문 |

제1부 분석의 기초 이론 이해하기

왜 생각을 분석해야 하는가 · 10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한다. · 12

생각을 분석하려면 여덟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14

생각을 평가하려면 생각의 표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6

생각을 잘 하려면 다음을 기억하라 · 18

-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라 · 20
- 질문을 제시하라 · 21
- 정보를 수집하라 · 22
- 신중하게 추론하라 · 23
- 개념을 명료히 하라 · 24
- 전제를 검토하라 · 25
- 함축에 대해 생각하라 · 26
- 관점을 이해하라 · 27

제2부 논리 분석하기

비판적 사고의 정신 · 28

감정의 논리 분석하기 · 29

문제 분석하기 · 32

사설, 에세이 등의 논리 분석하기 · 36

교재의 논리 분석하기 · 42

글쓴이의 생각 평가하기 · 43

교과의 논리 분석하기 · 45

- 과학의 논리 · 47
- 역사의 논리 · 48
- 사회학의 논리 · 49
- 경제학의 논리 · 50
- 생태학의 논리 · 52

제3부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분석과 평가

분석과 평가 · 54

- 목적 · 54
- 질문 · 56
- 정보 · 58
- 추론과 해석(결론) · 59
- 개념과 아이디어 · 60
- 전제 · 61
- 함축과 결과 · 62
- 관점 · 63

추론과 전제를 구별하기 · 64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것 · 66

요약 · 68



제1부 분석의 기초 이론 이해하기

🌿 왜 생각을 분석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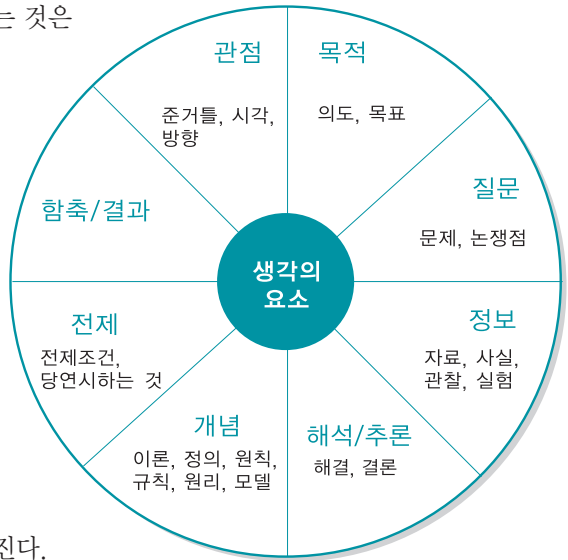
사람들은 모두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은 대부분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왜곡되기 쉽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우선 생각이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그래야 생각을 나누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분석의 시작이다.

모든 생각은 여덟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생각은 여덟 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 : 모든 생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제**에 바탕을 둔 **관점** 안에서 이루어지며 **함축**된 것이 있다. 또한 **정보**와 사실과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개념**과 아이디어와 이론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질문**에 답을 하고 문제와 쟁점을 **해결(해석 · 추론)**한다.

그러므로 결국 생각한다라는 것은

- 목적을 가지고
- 질문을 하며
- 정보를 활용하여
- 추론을 하고
- 개념을 사용하며
- 전제를 갖고
- 함축을 가지며
- 관점 안에서 이루어 진다.



이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목적이 변경되면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질문이 바뀌면 정보도 그에 맞게 다시 찾아야 한다. 만약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 한다면…….

중심 생각 생각을 이루고 있는 여덟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에 대해 알고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한다

엄밀히 말해서 생각하는 것과 이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이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형식적으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유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추론 능력, 즉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능력에 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며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무언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을 때이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든 크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과정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지 않을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뭔가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다.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등을 결정할 때도 이유를 가지고 생각한다. 교통상황을 예측하고자 할 때,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반응할 때, 속도를 늦추거나 높일 때에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일상적인 일 외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 예를 들어 시, 미생물, 사람, 숫자, 역사적 사건, 사회 제도, 심리 상태, 성격 특성, 과거, 현재, 미래 등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의 생각은 대부분 무언가를 근거로 해서 결정하거나 결론을 내린다. 다만 매순간 그 점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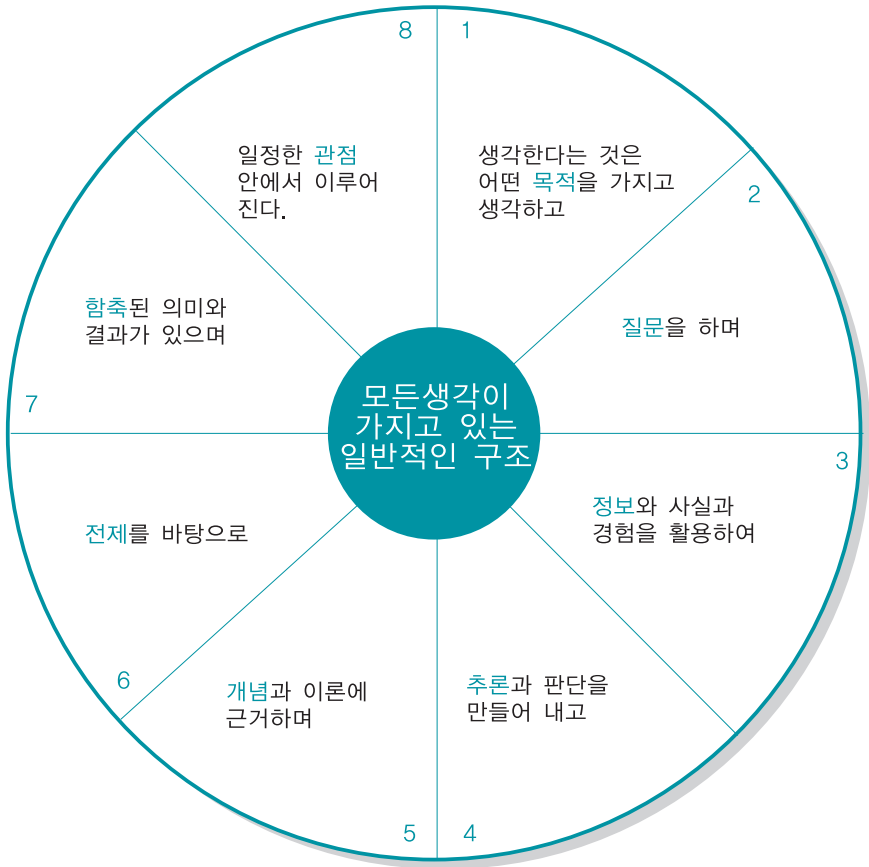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의미를 주는 것도 이 생각을 통해서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 따라 대상을 이해한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의미를 만들고 세상을 이해하게 만든다. 모든 생각은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문이 굽히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개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한다. 하늘에 먹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겠네!’ 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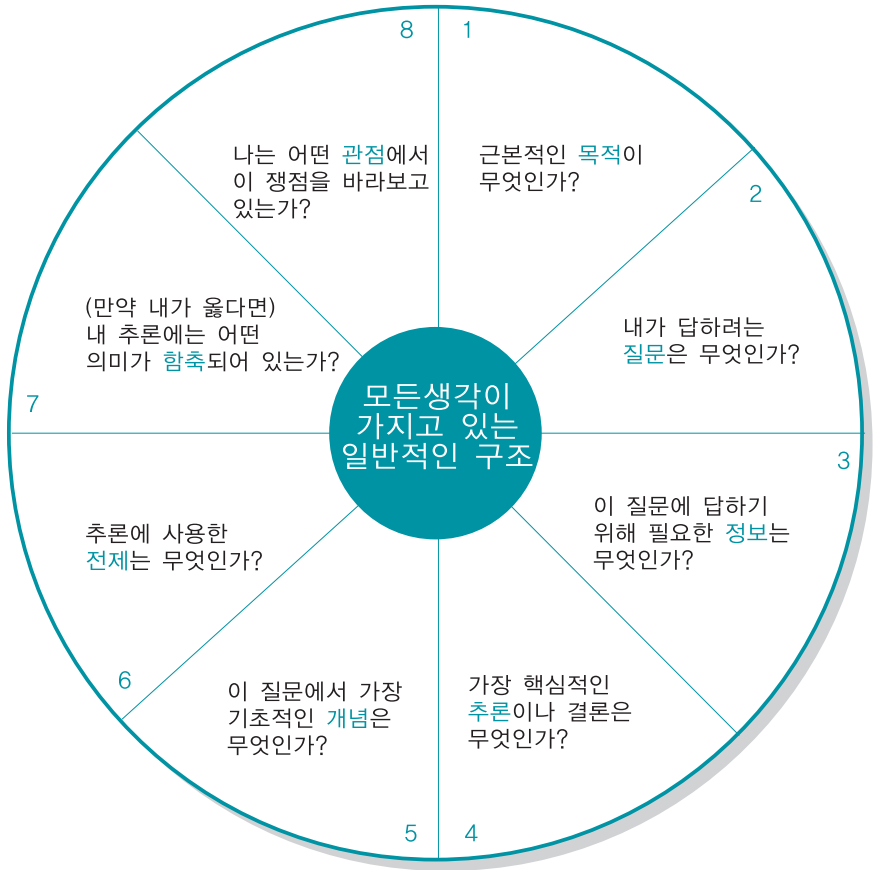
이런 생각 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고 듣는 대부분의 것들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채로 어떤 의미를 준다.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별다른 의식 없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깨닫는 경우는 자기의 생각이 누군가에게 도전받고 있어서 그것을 막아야 할 때이다. (“너는 왜 원석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니? 나는 원석이가 재미있는데……”)

언뜻 보면 생각은 아주 단순해서 별다른 하위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련의 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지적인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생각의 표면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중심 생각 생각이란 대부분 이유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다.
생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에 깔려 있는 지적인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생각을 분석하려면 여덟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알아둘 점 : 생각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생각의 각 요소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 생각을 평가하려면 생각의 표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생각을 잘 하는 데 필요한 표준에 대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표준에 따라 자신의 생각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평가하면서 생각한다. 이 표준을 내면화하고 명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좀 더 명료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적절하고, 깊이 있고, 폭넓고, 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표준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이 밖에도 믿을 만함, 충분성, 신뢰성, 실용성 같은 표준이 있다.

생각의 표준

- **명료성** : 이해할 만한,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되는
- **정확성** : 실수나 왜곡이 없는, 사실인, 참인
- **정밀성** : 꼭 필요한 수준만큼 자세한
- **적절성** :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 **깊이** : 복잡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상호 관련성을 포함하는
- **넓이** :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는
- **논리** : 각 부분이 서로 앞뒤가 맞는, 모순이 없는, 말이 되는
- **중요성** :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 **공정성** : 정당한, 이기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은

각각에 대한 질문

명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좀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는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다른 것에 비유해서 말할 수 있는가?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것을 어떻게 검토해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을 증명하거나 실험해 볼 수 있는가?
정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좀 더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가?- 좀 더 세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것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그것이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가?
깊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어떤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
넓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다른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뒤가 맞는가?- 처음에 한 말과 마지막에 한 말이 같은가?- 제시된 증거에서 이 의견이 나올 수 있는가?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것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이 집중해야 할 중심 생각인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쟁점에는 내게 유리한 입장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 공감하여 표현하고 있는가?

🌿 생각을 잘 하려면 다음을 기억하라

1. 생각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목적을 분명하게 진술하라.
- 자신이 세운 목적과 그와 관련된 목적을 구별하라.
- 처음에 세운 목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 중요하고 현실적인 목적을 선택하라.

2. 생각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질문에 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료하고 정밀하게 질문하라.
-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표현하라.
- 질문을 하위 질문으로 나누어 보라.
- 질문이 하나의 정답만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한 의견을 묻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관점으로부터 생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라.

3. 생각은 자료와 정보와 증거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 자신의 자료가 보장할 수 있는 것만을 주장하라.
-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와 함께 반대되는 정보도 찾아보라.
-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라.
- 정보를 충분히 모았는지 확인하라.

4. 생각에는 자료에 의미를 주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과 해석이 있다.

- 자신이 준비한 증거를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결론만을 내려라.
- 일관성을 가지고 추론하였는지 검토하라.
- 자신의 추론에 깔려 있는 전제를 확인하라.

5. 생각은 **개념**을 통해 표현되고, 개념으로 만들어진다.

- 핵심 개념을 확인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라.
- 대안이 될 만한 다른 개념을 찾아보라.
- 개념을 다르게 정의할 수는 없는지 고려하라.
- 개념을 정밀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6. 생각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

- 당연시하고 있는 전제를 분명하게 확인하라. 그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라.
- 전제가 자신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

7. 생각에는 **함축된 것이 있으며 결과가 있다.**

- 자신의 생각이 함축하고 있는 것과 가져 올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라.
- 긍정적인 함축과 함께 부정적인 함축도 찾아보라.
- 중요한 모든 결과를 고려하라.

8. 생각은 어떤 **관점** 안에서 이루어진다.

- 자신의 관점을 확인하라.
- 다른 관점을 찾아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약점과 함께 강점도 확인하라.
- 관점을 평가할 때는 공정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의 여덟 가지 생각의 요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라

목적은 목표이며 우리가 성취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이 낱말은 기능, 동기, 의도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해야 한다.

목적에 대한 질문

- _____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 이 과제 혹은 직업, 실험, 정책, 전략 등등의 목표는 무엇인가?
-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듬고, 조정하고 있는가?
- 왜 _____라고 얘기하는가?
- 이러한 생각 속에는 어떤 핵심 목표가 있는가?
- 이 모임, 글, 관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 신체 구조, 기계, 도구, 경제 정책, 생태계의 기능은 무엇인가?

알아들 점 :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세운 목적이나 목표에 달려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세운 목표 중에서 일부만을 인식한다. 만약 어떤 목표가 탐욕과 소유욕 때문이라면, 그런 목표는 버려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나쁜 목적은 숨긴 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곤 한다.

• 질문을 제시하라

질문은 문제와 쟁점을 드러내면서 생각을 이끌어 준다. 질문이 모호하면 생각은 명료하지 않으며 구별하는 능력도 모자라게 된다.

질문이 명료하고 정밀해야 적절하고 의미 있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한 질문

- 내가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 이 쟁점에 들어 있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질문할 수는 없는가?
- 이 질문은 명료한가? 그것은 복합적인가?
- 제기한 질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이 질문은 어떤 종류의 질문인가? 역사적인 질문인가? 과학적인 질문인가? 윤리적인 질문인가? 정치적인 질문인가? 경제적인 질문인가?
- 이 분야에서 얘기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아들 점 : 질문과 문제들은 흔히 가려져 있거나 모호하기 쉽다.

사람들은 자신이 나쁘게 보일 만한 문제들을 인정하기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문제와 쟁점을 표면에 떠올릴 지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

• 정보를 수집하라

정보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필요한 사실, 자료, 증거, 혹은 경험이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정확하거나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현재 언급되고 있는 문제나 쟁점 등에 적절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질문

-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 이 문제에 적절한 자료는 무엇인가?
- 정보를 좀 더 모아야 하는가?
- 이 정보는 우리의 목적, 혹은 목표에 적절한 것인가?
- 이 말은 어떤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가?
- 어떤 경험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는가? 혹시 경험이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 수집된 정보나 자료 혹은 증거가 정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지는 않았는가?

알아들 점 : 자기모순과 기만을 보여주는 정보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지지해 주는 정보만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무시하거나 평가 절하한다. 비판적 사고는 지적인 정직성을 요구한다.

• 신중하게 **추론**하라

추론은 최종적으로 이끌어 낸 어떤 해석이나 결론이다. 추론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추론은 증거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추론은 주어진 상황이 함축하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추론을 검토하기 위한 질문

- 결론은 무엇인가?
- 추론이 논리적인가?
- 고려해야 할 결론은 또 없는가?
- 이 해석은 의미가 있는가? 말이 되는가?
- 이 해결 방법은 우리가 가진 자료들에서 나온 것인가?
-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가?
- 어떤 근거에서 추론하였는가?
- 대안적인 결론은 없는가?
- 주어진 사실을 모두 고려할 때 최선의 결론은 무엇인가?
- 우리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알아둘 점 :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자신이 내린 결론이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지 검토하라. 혹시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한 게 아닌지 검토하라.

• 개념을 명료히 하라

개념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이디어, 이론, 규칙, 원리, 가설 등이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명료히 하라. 그리고 그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라.

개념에 대한 질문

- 나는 지금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가? 이 개념은 내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 이 이론에 대해 좀 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 이 추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심 가설은 무엇인가?
- 이 낱말들을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구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작가는 그의 글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문제가 없는가?
- 물리학, 화학, 사회학의 기본 원리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는가?

알아들 점 :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개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되기 쉽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혹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념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세심하고 명료하고 공정하게 언어를 사용하라.

• 전제를 검토하라

전제란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신념이다. 전제는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 수준에서 작용한다.

전제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건전한 증거를 가진 정당한 것인지 검토하라.

전제에 대한 질문

- 내가 따져보지도 않고 당연시한 것은 무엇인가?
- 전제하면 안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한 전제는 무엇인가?
- 이러한 정책이나 전략, 설명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사회학자, 역사학자, 수학자 등등이 당연시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 왜 이런 전제를 갖게 되었는가?
- 이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내가 친구, 부모님, 선생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제는 무엇인가?

알아둘 점 : 잘못된 생각은 대부분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다. 전제는 흔히 무의식 수준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제는 대개 선입견이거나 편견일 수 있고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제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것이 정당한지 검토하라.

• **합축에 대해 생각하라**

합축이란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일어남직한 것들이다. 결과는 행동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행동하기 전에 그 상황이 합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합축에 대한 질문

- 만약 내가 ~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만약 내가 ~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이 말이 합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저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라는 것은 무엇을 합축하고 있는가?
- 이 결정이 합축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감옥에 더 많다는 사실은 무엇을 합축하고 있는가?

알아들 점 :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결정이 합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행동에는 합축된 무언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합축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여러 합축 중에서 좀 더 중요한 합축이 무언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합축이란 돌맹이가 호수에 떨어졌을 때 그리는 파문과 같은 것이다.

• **관점을 이해하라**

관점이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위치’이며, 무언가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관점에 따라 상황과 쟁점을 바라보는 방식이 쉽게 왜곡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관점의 한계를 이해하라. 그리고 관련된 다른 관점도 고려하라.

관점을 검토하는 질문

-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가?
- 정확하게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내 관점만이 합당한가? 내 관점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이 문제를 독일 사람이, 일본 사람이, 이슬람 교도가, 남아메리카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관점은 무엇인가?
- 개인적인 신념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은 무엇인가?
-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가?
- 따져보지도 않고 내 관점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 점 : 모든 생각은 어떤 관점 안에서 이루어진다. 흔히 우리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관점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는다. 왜일까? 그러한 관점들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꾸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유지하고 싶은 신념이나 목적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가는 모든 관점에 기꺼이 공감하며 다가갈 줄 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기꺼이 관점을 바꾼다.



제2부 논리 분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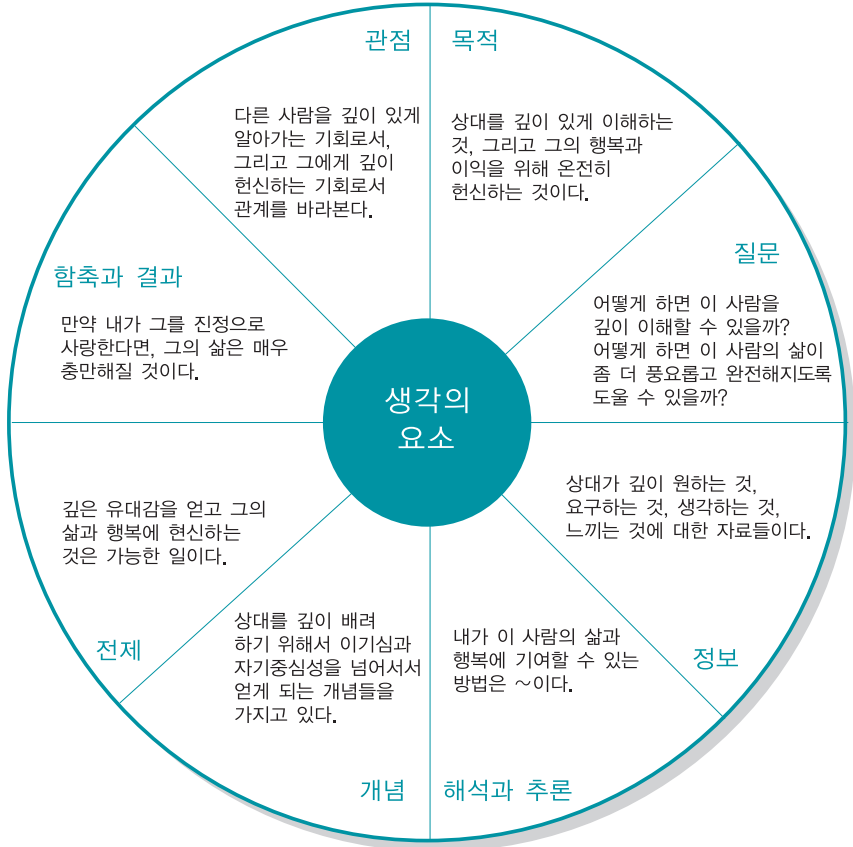
비판적 사고의 정신



알아들 점 : 비판적 사고가에게는 논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서와 구조와 상호연관성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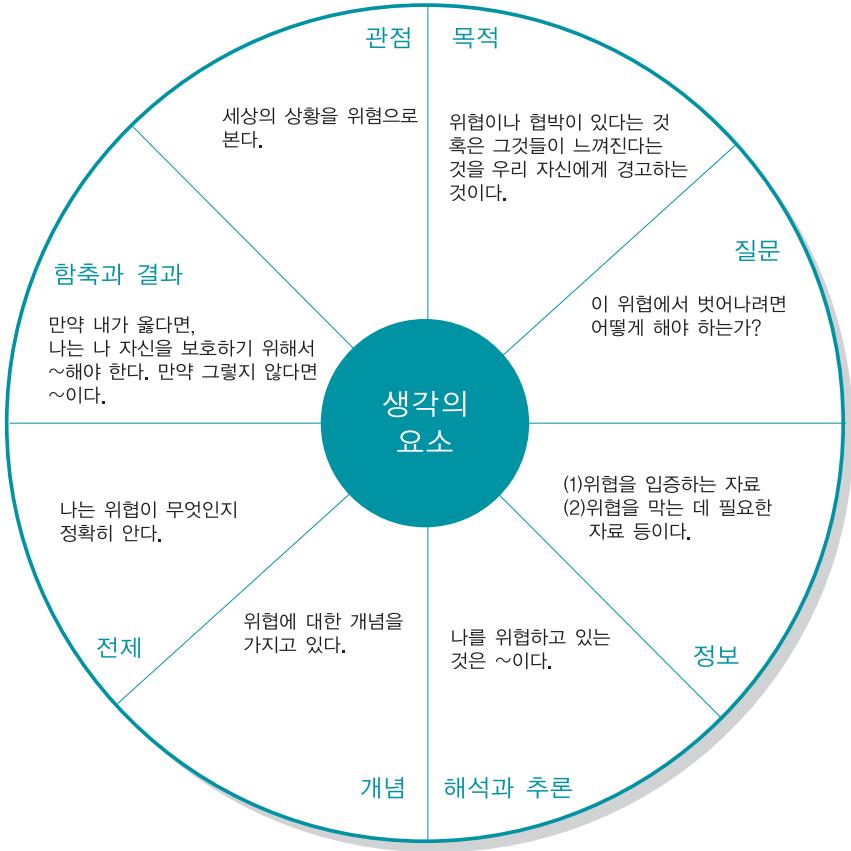
감정의 논리 분석하기

사랑의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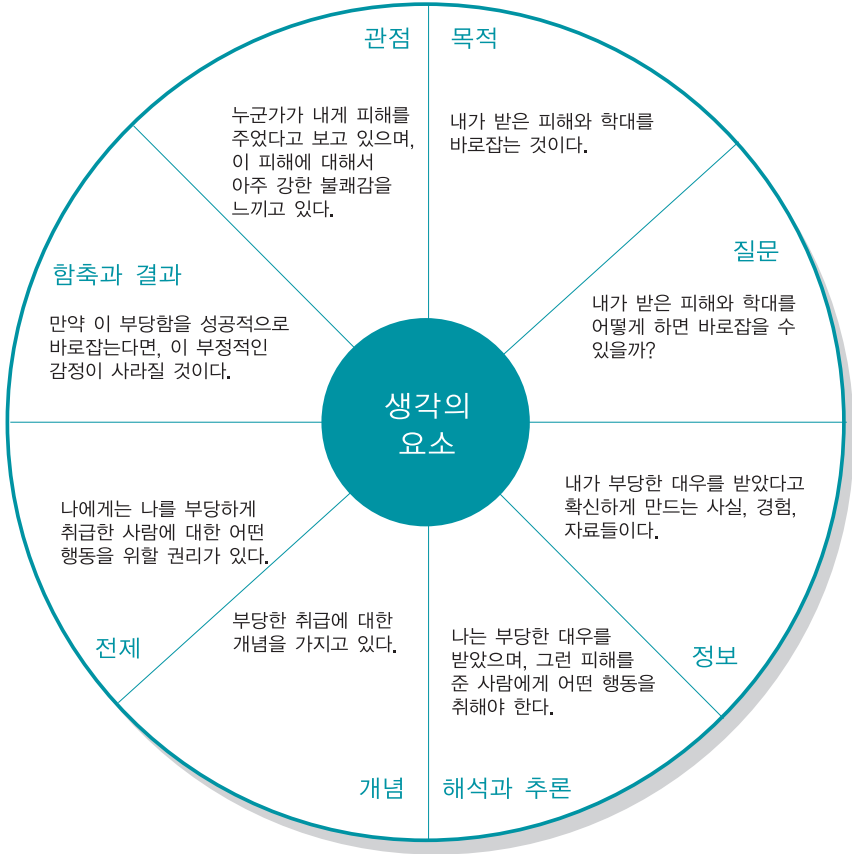
알아들 점 :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에도 그 나름의 논리가 있다. 모든 감정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두려움의 논리



알아둘 점 : 두려움의 논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적절하게 다루는 열쇠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어떤 두려움은 정당하지만 어떤 두려움은 그렇지 않다.

분노의 논리



알아들 점 : 분노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생각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감정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추진력이다.

문제 분석하기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그리고 나서 다음의 절차를 따라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라.

-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가 어떤 종류인지를 확실히 파악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문제와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구별하라.
- 쟁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어떤 쟁점들이 서로 같등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그 문제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히 하라.

-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내라.
-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마라.
- 표현한 것과 실제로 원하는 것을 일치시켜라.

2. 그 문제로부터 제기되는 핵심 **질문**을 파악하라.

- 질문을 최대한 명료하고 정밀하게 진술하라. 자세하게 질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그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라.

- 단기적, 장기적인 실행 모두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라.
- 돈과 시간과 힘의 한계를 염두에 두라.

4.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꼭 필요한 주요 **개념**과 이론,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라.

-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 개념을 모두 파악하라.
- 그 개념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 좋은 사전을 사용하라.

5.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전제**를 파악하라.

- 자신이 따져보지도 않고 당연시한 전제를 모두 찾아내라.
- 그 전제가 자기편의주의적이거나 부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6. 이 문제의 해결이 가져 올 **결과(합축)**와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결과를 파악하라.

- 행동하기 전에 각각의 대안이 가져 올 이익과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대안들을 평가하라.
- 이런 혹은 저런 결정이 가져 올 결과는 무엇인가?

7. 자신의 **관점**을 파악하라.

- 자신의 생각이 어떤 관점에서 시작됐는지 알아내라.
- 관점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라.

8. 위와 같은 생각을 거쳐 **추론**하고 그 추론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라.

- 만약 그 문제에 서로 갈등하는 관점이 있었다면, 과연 자신의 결정이 최선인지 평가해 보라.
- 만약 그 문제가 단순한 것이라면, ‘옳은’ 해결이 단 하나일 수도 있다.

문제 분석하기의 예 : 공해 문제¹⁾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공해이며, 사람들이 공해를 줄이는 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의료 문제, 동식물의 손실, 수자원 오염 등의 문제가 계속 증가한다.)

1. 이 문제를 제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좀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확대하는 것이다.

2.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개인적 차원에서 공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다 같이 공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이 질문과 관련된 주요 **정보**는 무엇인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배출과 같이 현재 오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것, 교통수단 활용 문제 같은 것이다. 또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단체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4. 내 생각이 갖고 있는 주요 **개념**은 무엇인가?

공해와 건강한 생물환경에 대한 개념이다. 나아가 기술적, 생태학적, 윤리적 개념도 필요하다. 이 개념은 공해가 가진 다양한 차원을 이해하게 해주며, 그것이 야기할 해로운 결과에 수반되는 윤리적 책임을 이해하게 해준다.

1)이 문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단지 문제가 가진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자료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접근을 할 때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분석을 심도 있게 하게 된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배경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생태학의 논리(52쪽)를 보라.

5. 내 생각이 갖고 있는 **전제**는 무엇인가?

오염은 환경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사람들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 우리 모두는 공해를 줄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6. 나의 **관점**은 무엇인가?

나는 공해에 주목하고 있다. 나 스스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7a. 사람들이 이 쟁점에 대해 제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생활의 질이 좀 더 오래 높게 유지될 것이다. 아울러 동식물과 생태계가 보호될 것이다. 이 밖에도 환경과 수자원, 숲 등에 대해 긍정적인 함축이 많다.

7b. 사람들이 이 쟁점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는가?

공해의 해로운 결과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8. 이 문제에 대해 위의 생각을 거쳐 얻은 최선의 **결론(해결책)**은 무엇인가?

내가 발견한 다양한 방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 사실, 에세이 등의 논리 분석하기

에세이나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생각의 표준(43쪽 참고)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분석하는 데 필요한 모형이다.

1. 이 사실의 주요 목적은 _____이다.

글쓴이가 이 사실에서 의도한 바를 최대한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글쓴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2. 글쓴이가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은 _____이다.

글쓴이가 이 글을 썼을 때 마음속에 두었던 핵심질문을 파악해내야 한다. 이 글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질문은 무엇인가?

3. 질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_____이다.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가정한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글쓴이가 자신의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한 사실과 경험, 그리고 자료 등을 찾아보라.

4. 이 글에 나타난 핵심 추론은 _____이다.

글쓴이가 이 글에서 이끌어내거나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5. 이 글에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은 _____이다. 그 개념의 의미는 _____.

글쓴이의 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글쓴이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나타내고자 한 의미는 무엇인가?

6. 글쓴이의 생각에 깔려 있는 중요한 전제는 _____이다.

문제가 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글쓴이가 당연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전

제란 글쓴이가 글 속에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일반화된 것들이다. 그래서 대개 전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글쓴이의 생각은 대부분 이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출발한다. 그러므로 전제를 찾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7a. 우리가 글쓴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_____을 **함축**한다.

만약 사람들이 글쓴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여기서는 글쓴이의 생각이 가진 논리적인 함축을 찾아내야 한다. 글쓴이가 얘기한 함축은 물론 얘기하지 않은 함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7b. 우리가 글쓴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_____을 **함축**한다.

사람들이 글쓴이의 추론을 무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8. 이 글에 나타난 중요한 **관점(들)**은 _____이다.

글쓴이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우리는 ‘분석’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문제나 쟁점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의례 생각의 8요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위의 구조가 글쓴이의 글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을 거의 글쓴이와 같은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구조는 모든 생각이 가지고 있는 여덟 가지 기본 구조이다. 또한 그것들은 생각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알아들 점 : 우리는 사설이나 에세이, 기타 글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생각의 기본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사설의 논리 분석하기의 예

뉴스미디어를 개혁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²⁾

저널리스트는 대중에게 편견 없는 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자신과 정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대중이 어떤 글에 공감할지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저널리스트들은 사회에 대한 중립적인 통찰력을 키워야 하며, 비판적인 독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독자가 그들의 글을 ‘편견’이나 ‘왜곡’ 혹은 ‘정치적 선전’ 등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기자들은 무책임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자 자신의 관점으로 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팔레스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글을 쓰는 이스라엘 저널리스트를 상상할 수 있는가? 인도에 대해 공감하는 글을 쓰는 파키스탄 저널리스트를 상상할 수 있는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저널리스트들 역시 자신의 뜻대로 기사를 쓰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실 그들은 독자가 원하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 즉, 그들의 기사는 그가 속한 사회의 본질과 신념, 가치, 그리고 그 구성원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혹은 자기사회중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관점을 넓히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를 찬양하면서 그에 따르고자 한다. 축구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홈팀이 이기기를 바라며, 자신의 팀이 이기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혹 자신의 팀이 진다하더라도 그들은 그 경기가 별로 중요한 경기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더러는 상대팀을 비방하거나 심판이 자기 팀에 불공정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2) Paul, R. and Elder, L. (2002) 이 시리즈 중 하나인 ‘어떻게 매체의 허와 실을 구별해야 하는가’에서 발췌.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대중이 그들의 관점이나 열정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해주는 뉴스를 선호하는 한 신문이 어떤 기사를 실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그 논리는 한 국가의 식습관을 개혁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다수의 사람이 고지방함유 식품을 원하는 한 시장은 그들에게 그것을 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사회중심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기사를 원하는 한, 또한 선과 악이라는 견지에서 세상을 표현하는 단순한 기사를 원하는 한 뉴스미디어는 그들에게 서비스하는 종류의 기사를 만들어낼 것이다.(여기서 선이란 독자들의 관점에서 선인 것이고 악이란 독자들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자들이 가진 편견과 열정을 주기적으로 강화해주는 뉴스 자료는 계속 이익을 만들어 갈 것이며, 그에 대한 평가 역시 계속 치솟을 것이다.

1. 이 사설의 주요 목적

뉴스미디어는 관행적으로 독자들의 선입견을 유지하면서 뉴스를 왜곡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관행은 잘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이 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

뉴스미디어를 개혁하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

3. 이 사설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 1) 최근 뉴스미디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 (1) 뉴스미디어는 그들을 사주는 독자의 관점에 맞도록 이야기를 왜곡한다.
 - (2) 뉴스미디어의 근본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2) 뉴스미디어가 좀 더 지적인 책임을 갖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정보

(1) 뉴스미디어는 세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뉴스미디어는 사회에 대한 중립적인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4. 이 글의 주요 **추론**

‘기득권을 가진 대중이 그들의 관점이나 열정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해주는 뉴스를 선호하는 한’ 뉴스는 편파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뉴스미디어의 근본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가 가진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강화해 주어야 계속 자신들의 신문을 사서 볼 것이다. 그러므로 뉴스미디어는 독자의 시각에 맞게 사건을 끊임없이 왜곡할 것이다.

5. 이 글에서 글쓴이의 생각을 이끄는 주요 **개념**

편견적 저널리즘과 비편견적 저널리즘, 자기중심주의, 사회중립주의, 정치적 선전(각 개념은 좀 더 자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6. 글쓴이의 생각에 깔려 있는 주요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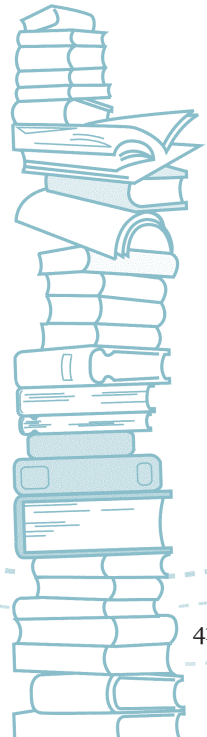
뉴스미디어를 뒤에서 조종하는 힘은 이윤 획득이다. 그러므로 뉴스미디어는 좀 더 많은 신문을 팔기 위해서 독자의 시각을 왜곡하고 선동한다. 그러나 뉴스미디어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제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7. 이 생각이 정당하다면 그것이 **합족**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뉴스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뉴스미디어가 어떻게 독자의 편견에 맞게 이야기를 왜곡하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자기사회중심적인 관점이 뉴스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강화되고 왜곡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이 글에 나타난 주요 **관점**

뉴스미디어의 주관심사는 이윤 획득이기 때문에 뉴스미디어는 독자나 사회의 편견을 조장하도록 뉴스를 구성한다.



🌿 교재의 논리 분석하기

1. 이 교재의 주요 **목적**은 _____이다.
2. 이 교재에서 글쓴이가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은 _____이다.
3. 이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_____이다.
4. 이 교재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추론**은 _____이다.
5. 이 교재에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은 _____이며,
그 개념들이 의미하는 것은 _____이다.
6. 글쓴이의 생각에 깔려 있는 주요 **전제**는 _____이다.
- 7a. 사람들이 교재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함축**하는 것은 _____
_____이다.
- 7b. 사람들이 교재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함축**하는 것은
_____이다.
8. 이 교재에 나타난 주요 **관점**은 _____이다.

알아들 점 : 학생들이 교재에 담긴 논리를 파악한다면 그들은 그 교재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중추적인 정비장치 (central organizer)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단편적인 수용이나 단기 기억은 깊이 있고 통합적인 배움을 가로막는 매우 근본적인 장애물이다.

✎ 글쓴이의 생각 평가하기

글쓴이의 생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을 생각의 8요소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 생각의 9표준, 즉 명료성, 정확성, 정밀성, 적절성, 깊이, 넓이, 논리, 중요성, 공정성을 적용해서 평가한다. 생각의 9표준에 대해서는 16~17쪽을 참고하라.

1. 글쓴이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글쓴이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가, 아니면 함축적인가? 그것은 정당한가?

2. 글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질문이 잘 드러나 있는가, 아니면 함축적인가? 그것은 명료하고 공정한가? 질문이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3. 글쓴이가 제시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글쓴이는 적절한 증거와 경험을 들고 있는가? 쟁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인용하고 있는가? 그 정보는 정확하며 현안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가? 글쓴이는 쟁점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있는가?

4. 글 속에 나타난 **중요한 추론**이나 **결론**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글쓴이는 자신이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명료하게 결론을 내렸는가? 아니면 정당화될 수 없는 결론으로 비약하였는가? 복합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대안적인 결론도 함께 고려하였는가? 글쓴이는 건전한 추론을 통해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는가? 아니면 추론에서 허점이 발견되는가?

5. 글쓴이의 생각에서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글쓴이는 핵심 개념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가? 사용된 개념은 정당한가?

6. 글쓴이의 **전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글쓴이는 자신이 당연시하고 있는 전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민감한가? 아니면 자신의 전제에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전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7. **함축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글쓴이는 자신이 택한 결정이 함축하고 있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 민감한가?

8. 글쓴이의 **관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글쓴이는 대안적인 관점에 대해 민감한가? 글쓴이는 자기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기할 만한 반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그에 대해 반응하는가?

알아둘 점 : 생각의 표준을 적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평가할 수 있다.



🌿 교과와 논리 분석하기

생각은 여덟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교과와 학문에도 어떤 생각의 구조가 있고, 그에 따른 기본적인 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교과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그 논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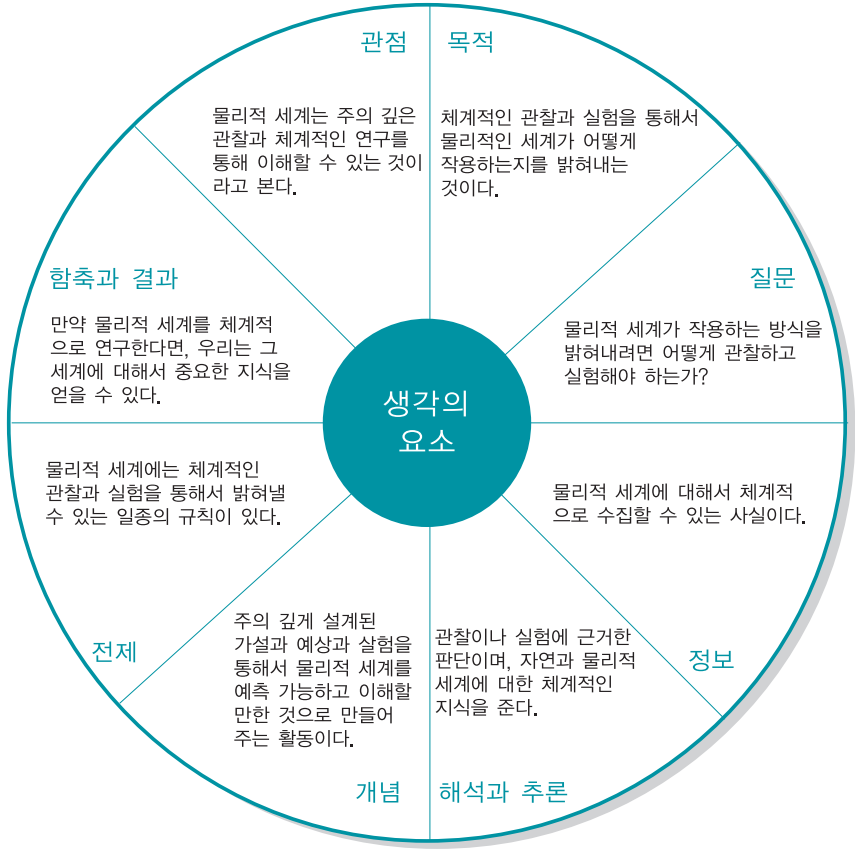
- 이 교과를 공부하는 주된 **목적**이나 **목표**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
- 이 교과가 제기하는 **질문**은 어떤 것인가? 어떤 종류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가?
- 이 교과가 모아놓은 **정보**나 자료는 어떤 것인가? 정보를 어떻게 모으는가?
- 이 교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추론**이나 판단을 하고 있는가?
- 이 교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개념**, 이론은 무엇인가?
- 이 교과에서 당연시하거나 **전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이 교과를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이 분야에서 공부한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이 교과에 대한 공부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교과를 통해 길러지는 관점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질문은 학교수업이나 교재의 한 단원, 혹은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적절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다.

- 오늘 나의 **목적**이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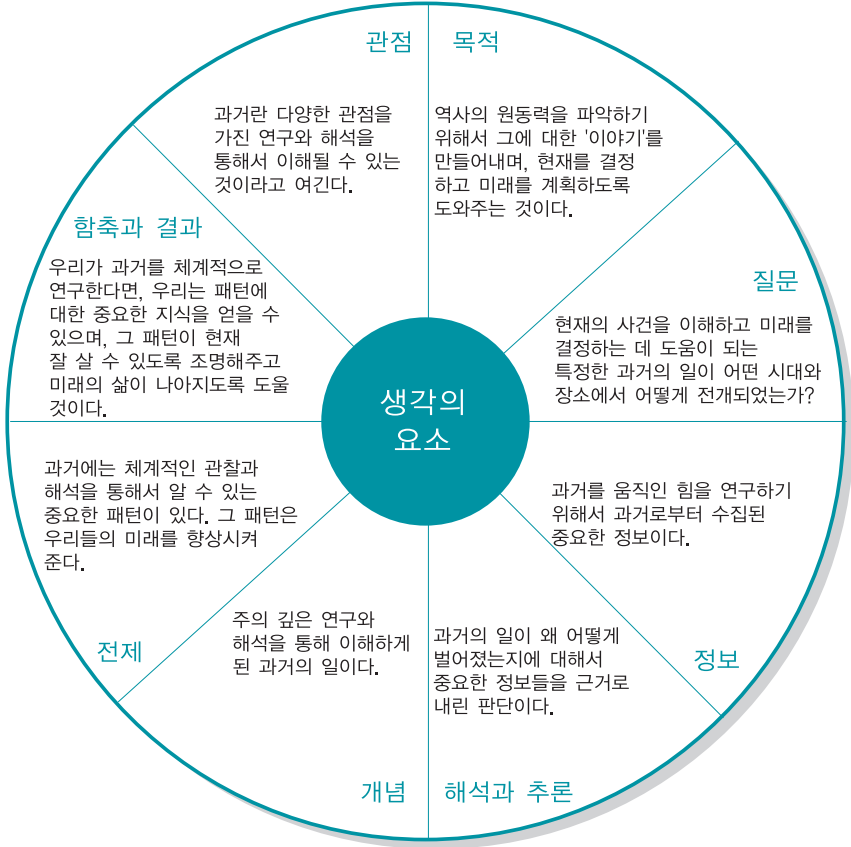
-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정보를 어떻게 얻는가?
- 우리가 만든 **추론** 중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이 있는가?
-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개념**, 이론은 무엇인가?
-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안전하게 **전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는가?
-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 과학의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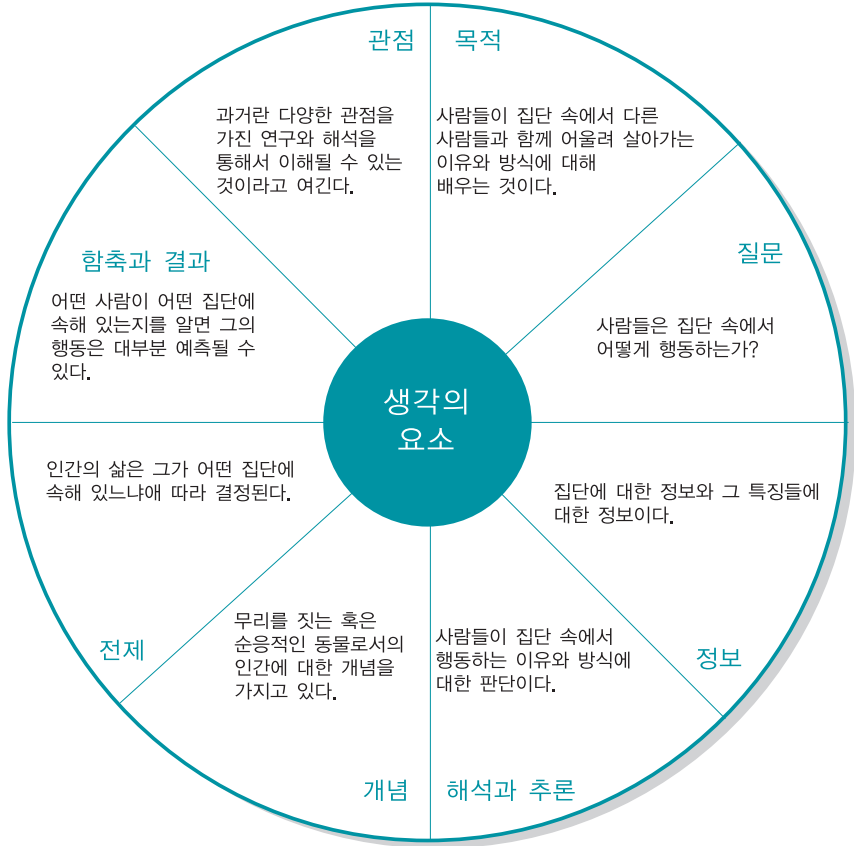
아이들 점 : 학교에서 과학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전문적인 일이나 일상 생활에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역사의 논리



알아들 점 :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역사적인 것 이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신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고는 대부분 결함이 많다.

• 사회학의 논리



알아들 점 : 우리는 빈약한 사회학적 사고에 기초를 두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거나 반박을 해야 할 때조차 그들에게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곤 한다.

• 경제학의 논리

목적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질문

사회 속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되고 소비되는가? 그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부와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한편 교육, 부, 권력에 대한 평등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대립하고 있는 경제 이론들 각각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정보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사상적 계보에 따라 사용하는 정보가 다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는 생산품의 공급과 수요, 소비자들의 선호,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사업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서도 그들은 총수요를 높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중요시한다. 반면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는 부의 분배가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중요시한다. 그들의 이상은 사람들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복돋워줄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나아가 가능한 한 자원이 평등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를 분배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정보는 그들이 이상적인 경제구조라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그들이 신봉하는 경제적인 이론이 제기하는 질문에 따라서 달라진다.

추론

경제학자들은 분배와 생산, 재화와 서비스를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방법에 대하여 추론한다. 이 추론은 각자가 가진 경제철학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인사업과 정부의 소비 패턴, 경제적 건강성, 부의 분배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개념

경제학은 인간사회에서 재화, 서비스,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중요한 경제개념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는데, 특히 지난 200년간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경쟁의 원칙, 공급과 수요의 법칙, 공리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시즘, 개발, 경제적 계층 간 갈등(특히 노사 갈등), 사유재산, 자유 시장, 이익,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주는 심리학적 다양성, 결핍에 대한 가정, 수확체감의 법칙, 한계효용과 생산 원칙, 총수요, 노동 가치 이론, 멜더스의 인구이론, 케인즈 이론 등이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이다.

전제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방법과 수단을 연구하면 경제구조가 좀 더 안정될 것이며, 그 구조 안에서 경쟁하는 사람들 또한 좀 더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외의 전제는 각자가 가진 철학이나 가치, 이론에 따라서 다르다.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보며,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하는 구조만이 현실적이라고 전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교육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자기중심에서 이타주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함축

경제 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이론마다 아주 다양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 실제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이 의문은 각각의 이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초점을 맞추며, 각 이론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일어날 만한 결과들(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1930년대 대공황은 자본주의 이론의 결함 때문인가,

아니면 그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가?

관점

경제학자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는 물론 그 분배를 좌우하는 권력의 분배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보고 이에 주목한다.

• 생태학의 논리

목적

생태학자들은 동식물이 자연과 맺고 있는 상호관련성,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동식물을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들은 동식물의 번식과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며, 서식지에서 그들의 생활과 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질문

동식물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동물끼리는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다양한 생태계는 각각 어떤 기능을 할까? 그들은 다른 생태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환경은 동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동식물은 어떻게 나서 자라고 죽고 번식할까? 동식물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까? 그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정보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동식물과 그들의 상호작용, 그들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관찰해서 얻는다. 생태학자들은 동식물이 어떻게 나서 자라고 죽고 진화하는지, 그들이 환경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또한 그들은 화학, 기상학, 지학 등을 포함한 다른 학문에서도 정보를 얻는다.

추론

생태학자들은 생태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동식물은 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그들은 그렇게 작용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한다. 그들은 생태계가 어떻

계 균형을 이루는지, 무엇이 그러한 균형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또한 자연공동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개념

생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생태계이며, 그것은 특정한 서식지에서 서로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생명체 집단으로 정의된다. 생태적 전이도 중요한 개념인데, 모든 생태계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자연적 패턴이다. 이 패턴에는 자연공동체의 탄생과 성장과 죽음과 번식이 포함된다. 생태학자들은 각 공동체를 외형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생물군계라고 불리는 좀 더 큰 단위로 묶는다. 자연의 균형 역시 중요한 개념이다. 그것은 번식하고 죽고, 먹고 먹히는 자연적 과정이며, 그러한 균형을 통해 동식물이 안정적인 생태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불균형, 에너지, 영양, 수의 증가, 다양성, 서식지, 경쟁, 약탈, 기생, 적응, 진화, 극상 군락의 계승과 보존 등과 같은 핵심개념이 있다.

전제

동식물 군락 안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동식물은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를 조절한다. 생태계 내의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함축

생태학적 연구는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해 수많은 함축을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자연의 균형에 대한 연구 덕분에 우리는 언제 자연이 균형을 잃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해충을 죽이기 위해 고안된 살충제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먹이사슬을 통해 어떻게 다른 생명체에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무리한 경작이 어떻게 토양의 부식과 고갈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관점

생태학자들은 동식물에 주목하며,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또한 지구의 균형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도 관심을 갖는다.



제3부 :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분석과 평가

🌿 분석과 평가

• 목적

모든 생각에는 목적이 있다.

기본적인 표준 : 명료성, 중요성, 성취 가능성, 일관성, 정당화 가능성

일반적인 문제 : 모호성, 사소함, 비현실성, 모순, 불공정

원칙 :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을 명료하게 이해해야 하며, 목적 자체가 합당하고 공정해야 한다.

숙련된 사고가	미숙한 사고가	비판적 반성
목적을 명료하게 밝히 고자 노력한다.	대부분 목적이 명료하 지 않다.	명료한 목적을 가지고 생각 하였는가? 목적을 명료히 밝히기 위해 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하 였는가?

자신의 주목적과 관련 목적을 구별할 줄 안다	자신의 목적을 관련된 다른 목적과, 때로는 모순되는 목적과도 혼돈한다.	다른 목적은 없는가? 여러 목적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순되는 목적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목적을 주기적으로 상기한다.	자신이 세운 기본적인 목표나 목적에서 벗어난다.	목적이 우왕좌왕하지는 않는가? 글의 각 문단은 주목적과 관계가 있는가?
현실적인 목적과 목표를 추구한다.	비현실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세운다.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택한다.	중요한 것인 양 하면서 사소한 목적과 목표를 세운다.	이 목적이 왜 중요한가? 좀 더 중요시해야 할 목적은 없는가?
자신이 이미 선택한 목적과 일관성을 가진 목적을 선택한다.	자신의 목적을 별 생각 없이 취소한다. 목적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다.	제안이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손상하지는 않는가?
목적에 맞게 생각한다.	목적에 맞게 생각하지 않는다.	논증이 쟁점에 집중되어 있는가? 목적 안에서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욕구나 권리를 자신의 욕구나 권리와 동등하게 고려하면서 공정한 목적을 선택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의 필요나 욕구를 희생시키고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목적을 택한다.	목적이 나 자신의 욕구만을 위한 것은 아닌가? 목적이 다른 사람의 욕구나 권리에 대해서도 고려한 것인가?

• **질문**

모든 생각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질문에 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표준 : 명료성과 정밀성, 중요성, 답변 가능성, 적절성

일반적인 문제 : 모호성, 사소함, 답변 불가능성, 부적절성

원칙 :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이 답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명료해야 한다. 또한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속련된 사고가	미숙한 사고가	비판적 반성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이 명료하다.	질문이 명료하지 않다.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가? 명료하게 질문하였는가?
질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질문이 모호하고, 명료하지 못하다.	질문의 복합성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하였는가?
한 질문을 여러 하위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질문을 하위질문으로 나누지 못한다.	주요 질문에는 어떤 하위질문이 담겨 있는가? 주요 질문을 하위질문으로 나눌 수 있는가?
정기적으로 질문의 유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질문 유형을 혼동한다.	질문 유형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 윤리적 질문과 법적 질문을 혼동하고 있지 않나? 선호를 묻는 질문과 판단을 묻는 질문을 혼동하는 건 아닌가?

중요한 질문과 사소한 질문을 구별한다.	사소한 질문과 중요한 질문을 혼동한다.	중요한 질문이 따로 있는데도 사소한 질문에 주목하는 건 아닌가?
부적절한 질문과 적절한 질문을 구별한다.	적절한 질문과 부적절한 질문을 혼동한다.	내 질문은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질문과 관련이 있는가?
질문에 깔린 전제에 민감하다.	자주 유도질문을 한다.	유도질문을 하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나 자신이 옳다고 전제하지는 않았는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과 그럴 수 없는 질문을 구별한다.	대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질문에 대해 답하려고 한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가?

• 정보

모든 생각은 자료, 정보, 증거, 경험, 조사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표준 : 명료성, 적절성, 공정한 수집과 조사, 정확성, 적합성, 일관된 적용

일반적인 문제 : 모호성, 부적절성, 편견, 부정확성, 불충분성, 비일관적인 적용

원칙 : 생각이 건전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정보가 적절해야 한다.

숙련된 사고가	미숙한 사고가	비판적 반성
증거가 충분할 때에만 주장한다.	적절한 정보 없이도 주장한다.	주장에 증거가 있는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를 밝히고 평가할 수 있다.	어떤 정보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정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다.	증거 없이 제시했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는 없을까? 사용하고 있는 정보가 적절하고 정확한 것인지 검토하였는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정보도 적극적으로 찾는다.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정보만을 모은다.	반대주장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내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성의껏 검토하였는가?
쟁점과 무관한 정보는 무시하고 관련되는 정보에만 집중한다.	적절한 정보와 부적절한 정보를 주의 깊게 구별하지 않는다.	제시한 자료들은 내 주장에 적절한가? 적절한 자료를 찾는 데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근거를 가지고 건전한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을 내린다.	주어진 자료로는 불가능한 추론을 한다.	혹시 내가 인용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주장한 게 아닌가?
증거를 명료하고 공정하게 진술한다.	자료를 왜곡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시한다.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이 명료하고 적절한가? 내 주장에 맞게 정보를 왜곡하지는 않았는가?

• 해석과 추론(결론)

모든 생각에는 자료와 상황에 의미를 주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이 있다.

기본적인 표준 : 명료성, 논리성, 정당화 가능성, 깊이 있음, 합당성, 일관성

일반적인 문제 : 모호성, 비논리성, 부당함, 피상적임, 비합당성, 모순

원칙 : 생각이 옳으려면 추론이 옳아야 한다.

숙련된 사고가	미숙한 사고가	비판적 반성
자신이 어떤 추론을 하였는지 정확히 안다. 추론을 명료하게 밝힌다.	자신이 어떤 추론을 하였는지 모른다. 자신의 추론을 명료하게 밝히지 못한다.	어떤 추론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결론을 분명하게 밝혔는가?
항상 제시된 증거나 이유를 토대로 추론을 한다.	제시된 증거나 이유로는 불가능한 추론을 한다.	제시된 증거와 이유들을 토대로 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였는가?
피상적이기보다는 깊이 있게 추론한다.	피상적인 추론을 한다.	결론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피상적이지 않은가?
합당한 추론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	합당하지 않은 추론을 하거나 결론을 내린다.	결론은 합당한가?
일관되게 추론하여 결론을 내린다.	모순되는 추론을 하거나 결론을 내린다.	처음에 내린 결론과 뒤에서 내린 결론이 서로 일치하는가?
추론에 바탕이 되는 전제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생각에 바탕이 되는 전제를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추론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전제에 바탕을 두고 추론을 한다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질까?

• 개념과 아이디어

모든 생각은 개념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형성된다.

기본적인 표준 : 명료성, 적절성, 깊이, 정확성

일반적인 문제 : 모호성, 부적절성, 피상적임, 부정확성

원칙 : 생각이 올바르려면 생각을 형성하는 개념이 명료하고 적절하고 깊이 있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숙련된 사고가	미숙한 사고가	비판적 반성
논의되고 있는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핵심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무엇인가?
사용하고 있는 핵심 낱말이나 문단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개념이나 문단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핵심 낱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 ‘교활한’은 ‘영리한’에 없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특수한 정의를 구별할 줄 안다.	낱말이나 문장을 자신이 배운 것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닌가?
개념을 그 의미나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주제나 쟁점에 적합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한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상대를 무례하게 다루어도 된다는 의미인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가?
자신이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다.	사용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의 개념이 환자의 권리와 특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 **전제**

모든 생각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신념, 즉 전제가 깔려 있다.

기본적인 표준 : 명료성, 정당성, 일관성

일반적인 문제 : 모호성, 부당함, 모순

원칙 : 생각이 건전하려면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도 건전해야 한다.

숙련된 사고가	미숙한 사고가	비판적 반성
자신의 전제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안다.	자신의 전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모른다.	내 전제를 분명히 아는가?
주어진 상황과 증거에 합당하고 정당한 전제를 사용한다.	부당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전제를 깔고 있다.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전제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가?
전제들이 서로 일관된다.	전제들이 서로 모순된다.	지금 내 전제는 논증의 처음에서 사용한 전제와 모순되지 않는가?
항상 자신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는지 검토한다.	자신의 전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지금 나는 어떤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그것들은 정당한가? 어떻게 이러한 전제를 갖게 되었는가?

• 함축과 결과

모든 생각은 무언가를 이끈다. 즉, 생각에는 함축된 것이 있으며, 행동으로 옮겨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기본적인 표준 : 중요성, 논리성, 명료성, 정밀성, 완전함

일반적인 문제 : 중요치 않음, 비현실성, 모호성, 불안전함

원칙 : 생각을 잘 하려면 항상 자신의 생각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한다.

숙련된 사고가	미숙한 사고가	비판적 반성
자신의 생각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따져볼 줄 알며, 자신의 생각이 가져올 중요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떤 입장이나 결정이 가진 함축과 결과를 거의 알지 못한다.	하고자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모두 자세히 밝히고 있는가? 미처 고려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함축과 결과를 가능한 명료하고 정밀하게 진술한다.	결과에 대한 진술이 모호하다.	선택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명료하고 정밀하게 서술하였는가?
잠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이 처음에 예상했던 결과에만 매달린다.	결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는가?
예기치 못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다.	자신의 결정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면 매우 당황한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없는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변수는 없는가?

• 관점

모든 생각은 일정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표준 : 융통성, 공정성, 명료성, 넓이,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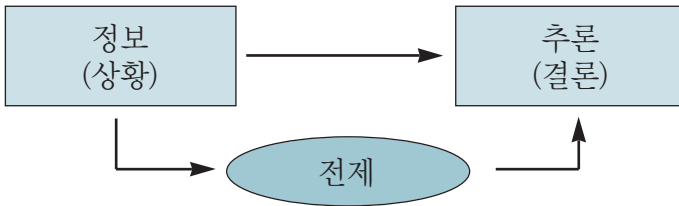
일반적인 문제 : 한정됨, 편견, 모호성, 편협함, 부적절성

원칙 : 생각을 잘 하려면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각각의 관점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숙련된 사고가	미숙한 사고가	비판적 반성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 특히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합당한 대안적 관점들을 무시한다.	어떤 관점에서 이 쟁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밝혔는가?
자신과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과 다른 관점에서 쟁점을 보지 못한다. 색다른 관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	다른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
다루고 있는 쟁점이 자신의 신념과 밀접하면 할수록 더욱 더 자신과 다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쟁점이 별로 관심 없는 것일 때에는 다른 관점도 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강하게 이끌리는 것이면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려 한다.	혹시 부당한 태도로 이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쟁점에 대해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
문제가 분명하게 하나의 관점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단선적으로 생각한다.	단선적인 쟁점과 복합적인 쟁점을 혼동한다.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단지 한 가지 틀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단선적인가? 아니면 복합적인가? 왜 그러한가? 실제로 적절한 다른 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점이 하나뿐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편견을 인식한다.	자신의 편견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편견을 가진 판단인가 아니면 합당한 판단인가? 만약 편견을 가졌다면, 그 편견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
풍부한 시각과 적합한 폭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	편협하고 피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	이 질문에 대한 접근이 너무 편협하지는 않은가? 이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 추론과 전제를 구별하기

추론과 전제를 자주 혼동하는데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추론이란 생각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즉, 참이거나 참으로 보이는 어떤 정보에 기초해서 참이라고 생각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추론은 정당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추론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나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제가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전제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전제는 편견이나 선입견과 같은 비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추론이 깔고 있는 전제를 찾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전제인지를 꼭 따져보아야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상황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갈등에 빠져 있다.

추론 : 이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더 정당하다.

전제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갈등에서 항상 정당하다.

상황 : 쓰기 과제 점수로 A를 받았다.

추론 : 나는 훌륭한 작가이다.

전제 : 쓰기과제 점수가 A인 학생은 모두 훌륭한 작가이다.

알아들 점 : 추론은 전제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전제가 잘못이면 그 추론 역시 잘못이다.

다음은 추론과 전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이다. 먼저 추론이 옳든 그르든 먼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추론을 하였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추론을 이끈 일반적인 생각을 찾아낸다. 그것이 바로 전제이다.

정보(상황)	가능한 추론	추론을 이끈 전제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선생님의 잘못이다.	학생이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 건 모두 선생님의 잘못이다.
마르크스의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공산주의자임에 틀림없다.	마르크스의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공산주의자이다.
가게에서 엄마에게 떼쓰는 아이를 보았다.	그 엄마는 아이가 사달라는 것을 사주지 않고 있다.	가게에서 엄마에게 떼쓰는 아이는 모두 엄마에게 사달라고 한 것을 거절당한 아이이다.
음식을 손에 들고 난간에 앉아 있는 남자가 있다.	그는 노숙자임에 틀림이 없다.	음식을 손에 들고 난간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은 노숙자이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보고 그로부터 뭇가를 추론하라. 그리고 그 추론을 가능하게 한 전제를 찾아보라.

정보(상황)	가능한 추론	추론을 이끈 전제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것

학문을 분석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 학문 분야나 일에 맞는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학 교과에 대한 개론적인 이해 없이 화학 교과를 수준 높게 분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모든 분석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안내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분석은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생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목적 없이** 분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질문 없이** 어떤 것을 분석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생들은 이 자명함을 모르고 있다.

분석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 책에서 제시한 분석적 도구(생각의 요소와 표준)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모니터링하면서 연습해야 한다. 자신의 목적과 목표, 문제의 정의, 정보, 개념 등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대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분석적 도구이다. 또한 자신의 분석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분석적 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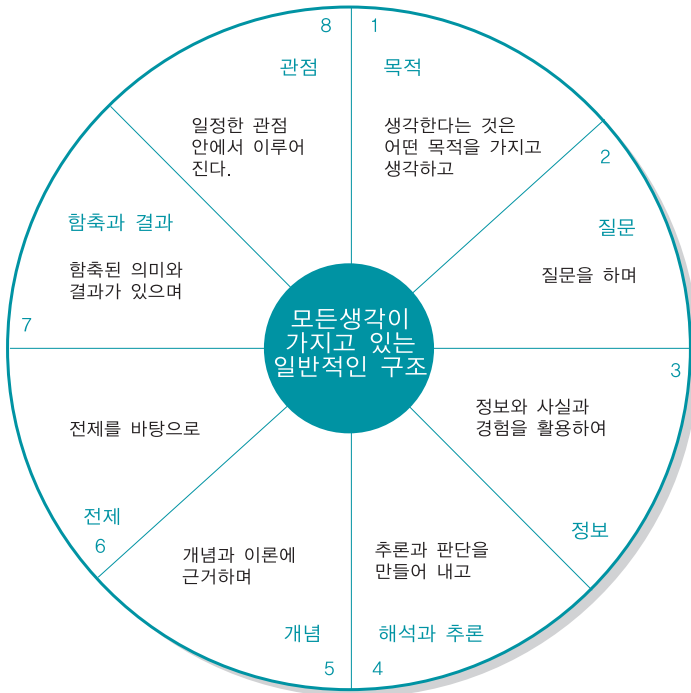
이 분석적 도구는 고도의 기술적인 분야에서부터 일상적인 개인사에까지 모두 적용 가능하다. 모든 교과, 주제, 문제 혹은 쟁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논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학습한 것을 다른 주제와 관련시킬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된 이런저런 생각과 지식을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다.

물론 분석적인 사고를 향상시켜주는 마법의 약은 없다. 정확한 시각과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을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지름길은 없다. 이 책은 분석적 능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지만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 시작을 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나는 이 길고 긴 연습에 헌신할 의지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

| 어떻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는가³⁾ |

1.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생각하려면 생각을 분석하고 생각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2.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8요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3. 생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9표준**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명료성 - 의미가 애매하지 않고 선명한가?

정확성 - 그것은 사실인가?

정밀성 - 구체적이고 세밀한가?

적절성 - 문제나 상황에 적합하게 생각하는가?

깊이 - 복합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가?

넓이 -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하는가?

논리 - 앞뒤가 맞고 추리가 타당한가?

중요성 - 중요한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공정성 - 공정한 관점에서 생각하는가?

“생각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역자 주 :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했다. 이 생각의 8요소와 9표준은 ‘생각의 기술 논술의 기술’ 시리즈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특히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가’는 이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hotec) 소개 |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Higher-Order Thinking Education Center:hotec)는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합당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는 세계적으로 비판적 사고력 교육을 이끌고 있는 리처드 폴 교수와 어린이 철학 교육을 이끌고 있는 매튜 립맨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연구 결과를 국내에 적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고차적 사고력 교육을 20년 이상 연구해온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함께 한국 상황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고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가정에서는 대화공동체를 구성하여 아이들의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학교에서는 탐구공동체를 구성하여 아이들의 사고력을 좀더 전문적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차적 사고력 교육은 심도 있는 토론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튼튼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논술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오는 고차적 사고력 교육이 본질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 홈페이지 : www.hotec.co.kr

생각의 기술 논술의 기술 1 : 어떻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는가

지은이 리처드 폴(Dr. Richard Paul), 린다 엘더(Dr. Linda Elder)
옮긴이 박진환, 김혜숙
펴낸이 이상덕
디자인 아이지미술
펴낸곳 HOTECH/고차적사고력교육센터

출판신고 제312-2005-000014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5 대림리시온빌딩 207
Tel (02)393-0811, Fax (02)393-0812
e-mail : book@hotec.co.kr
<http://www.hotec.co.kr>

초판 1쇄 인쇄 2006년 4월 10일
초판 1쇄 발행 2006년 4월 17일

ISBN 89-957159-2-8
ISBN 89-957159-1-X (세트)

